

섬 아이들 육지서 프로야구 관람 꿈 이뤘다

신안군복지재단 프로야구 관람 관내 초·중생 200여명 초청 행사
어르신 대상 재능기부 봉사활동
“폭넓은 복지서비스 제공 노력”

신안군복지재단(이사장 강정희)이 섬 지역 청소년들의 문화 소외 해소와 건강한 성장을 위해 광주 KIA 챔피언스필드에서의 프로야구 관람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 12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 타이거즈와 삼성 라이온즈 경기에는 신안 흑산 초·중학교 등 관내 학생 197명이 참가했다. 1루석에 모인 학생들은 보라색 티셔츠를 입고 열띤 응원을 펼치며 프로야구의 생생한 현장을 만끽했다.

신안군복지재단은 2023년 6월 관내 초등학교생 200명을 대상으로 첫 무료 관람 체험을 시작한 이후, 이번이 두 번째 활동이다.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마련해온 것은 섬지역 청소년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체육 체험의 폭을 넓히기 위함이다.

강 이사장은 “신안군은 14개 읍면이 모두 섬으로 이뤄져 있어 체육·여가활동 기회가 부족하다”며 “농어촌 근로환경과 접근성 제약으로 부모들이 직접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어려운 실정이어서, 재단이 체험활동 기획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이날 경기 관람에 동행한 학부모들은 프로그램의 지속적 확대를 바랐다. 김호심 씨(비교초 6학년 문승우 학부모)는 “2023년 첫 야구 관람 체험을 계기로 아이가 야구에 관심을 가져 현재 목포시 리틀야구단에서 활동하고 있다”며 “청소년들의 적성과 진로 탐색에 도움이 되는 이런 기회가 계속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안군복지재단은 2008년 민·관 중간연계조직으로 출범해 도서지역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재단은 노인전문요양원과 공립형 아동센터 3개소, 1004섬기초푸드뱅크 운영을 비롯해 생계·의료·주거환경 개선 긴급지원, 재능기부 봉사활동, 사회복지시설 지원, 지정기탁사업 등을 수행하며 민·관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군민 호응이 높은 낙도 미용봉사, 짜장봉사 활동도 이어가고 있다. 강 이사



지난 12일 신안군복지재단이 지역 학생 200명을 초청해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프로야구를 관람했다.

장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많은 도서지역을 직접 찾아가 미용봉사와 짜장면 제공, 말벗 봉사를 함께 하고 있다”며 “미용봉사 날을 기다리는 어르신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이사장은 “앞으로도 섬지역 아동과

청소년들이 육지에서 다양한 문화·체육 체험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지정기부 활성화, 소외계층 지원 확대, 도서지역 특성을 반영한 기획사업을 발굴해 지역사회복지 역량을 키워가겠다”고 밝혔다.

글·사진=신안 홍일갑 기자

비브리오패혈증 감염 주의 당부 무안군, 어패류 익혀 먹기 등

전라남도 무안군이 본격적인 해수 온도 상승으로 인한 비브리오패혈증 발생 위험 증가 및 올해 첫 국내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군민들에게 철저한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15일 무안군에 따르면 비브리오패혈증은 제3급 법정감염병으로, 비브리오패혈균에 감염돼 발생하는 급성 패혈증이다. 주로 바닷물, 갯벌, 어패류 등을 통해 감염되며 해수 온도가 상승하는 6월부터 10월 사이에 환자 발생이 집중된다.

감염 경로는 주로 오염된 해산물을 익히지 않고 섭취하거나 상처가 있는 피부가 오염된 바닷물에 접촉했을 때 발생한다. 감염 시 급성 발열, 오한, 혈압 저하, 복통,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24시간 이내에 다리 부위에 발진, 부종, 출혈성 물집이 생길 수 있다.

만성 간 질환자, 당뇨병 환자, 알코올 의존자 등 기저질환을 가진 고위험군이 감염될 경우 증상이 급격히 악화돼 사망에 이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비브리오패혈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패류는 반드시 충분히 익혀 먹기 △어패류는 5도 이하에서 저온 보관 △상처가 있는 경우 바닷물 접촉 피하기 △어패류 손질 시 장갑 착용, 조리기구는 소독 후 사용 △어패류 세척 시 해수 대신 수도물 사용하기 등을 준수해야 한다.

김성철 보건소장은 “비브리오패혈증은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키면 충분히 예방 가능한 감염병이다”며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은 어패류 섭취와 바닷물 접촉을 주의하고, 설사나 구토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날 경우 신속히 의료기관을 방문하거나 보건소에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무안=김행언 기자



진도군청 직원들이 과태료가 체납된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진도군 제공

진도군, 자동차세 체납 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전라남도 진도군이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하고 자주채원 확충을 목표로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을 실시 진행한다.

15일 진도군에 따르면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 30만원 이상인 차량 등이다.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차량은 전국 단위의 번호판 영치 대상이다.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액을 납부해야만 되찾을 수 있으며 영치 후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차량을 공매 처분해 체납액을 징

수한다. 다만 생계유지용 차량은 영치 예고를 통해 체납액의 납부를 촉구할 예정이다.

진도군 관계자는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해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주채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번호판 영치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자발적인 납부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진도=백재현 기자

완도군, 국제슬로시티연맹 시장 총회 연다

19일, 미국 등 11개국 참가

전라남도 완도군은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슬로시티와 해양치유’를 주제로 2025 국제슬로시티연맹 시장 총회가 개최된다고 15일 밝혔다.

국제슬로시티연맹은 전통과 자연을 보존하면서 ‘느림의 삶’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목표로 33개국이 가입돼 있으며 총회는 도시 간 슬로시티 철학과 가치, 정책 공유 및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자 개최되고 있다.

이번 총회에는 미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 11개국 174명의 슬로시티 대표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총회는 완도해양치유센터와 해변공원, 청산면 등에서 국가별 네트워크 동향과 이슈 발표, 회원 도시 정책 발표, 해양치유와 숲 치유 체험, 아시아 최초 슬로시티 청산도 투어 등이 진행된다.

군은 총회 개최를 통해 국제슬로시티 도시 간 협력은 물론 군의 국제적 위상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내외 참가자 유입에 따른 관광, 숙박 등 지역상권의 실질적인 경제적 파급효과와 해양자원을 활용해 국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완도군 역점 사업인 ‘해양치유’가 국제 무대에서 조명받게 될 전망이다.

슬로우 장터(슬로시티 특산물 판매관) 운영, 해양치유·국제해조류박람회

홍보, 버스킹 공연, 장보고 옷장 등 주민들의 국제 행사 참여로 공동체 의식 및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군은 총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지난달 30일 추진 상황 보고회를 개최하고 프로그램별 준비 상황 및 통역, 교통, 홍보 등 추진 계획을 점검했다.

총회 기간 중 21일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해변공원 일원을 ‘차 없는 거리’로 운영할 계획이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앞으로도 슬로시티 정신을 잘 실천하고 해양치유를 비롯한 완도만의 차별화된 정책, 웰니스 관광 도시 건설 등을 추진해 완도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슬로시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정태영 기자

비공용 전기차 완속충전기 보급 강진군, 최대 100만원 보조

전라남도 강진군이 전기차 인프라 및 환경개선을 위한 ‘2025년 비공용 전기차 완속 충전기 보급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15일 강진군에 따르면 비공용 전기차 완속충전기는 개인 가정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기자동차 충전 시설로 벽부형 또는 스탠드형충전기로 강진군은 비공용 완속충전기 27대를 선착순 보급하고 있다.

신청자격은 강진군에 3개월 이상 거주한 군민 또는 사업장이 있는 법인·단체로 전기자동차 소유자나 2025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대상자 중 환경부 및 한국전력공사 등에서 보조금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한다. 거주지 또는 직장에 충전기 설치를 위한 부지가 확보돼야 한다.

개인(세대) 또는 법인당 1대만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보조금은 충전기 종류에 따라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며 추가 설치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신청방법은 신청자가 충전기 제조판매사를 선택하고 직접 계약 후 신청서류를(강진군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갖춰 강진군청 환경과 담당자 이메일(kga7366@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진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환경과 환경관리팀 담당자(061-430-3222)에게 문의하면 된다.

강진=김윤복 기자

잔류농약 사전검사 집중 지원 해남군, 마늘·밤호박 등

전라남도 해남군은 마늘, 양파, 밤호박 등 농산물 출하 시기에 맞춰 잔류농약 사전검사를 집중 지원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농약잔류검사는 시중에 유통하려는 농산물 출하 전 잔류농약 성분을 검사해 부적합 농산물을 사전에 차단하고 수확과 출하 시기를 조절하기 위해 실시한다.

잔류농약이 유통과정에서 발생할 경우 출하 중단, 회수 조치 등으로 농가와 소비자 모두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어 군은 출하를 앞둔 농산물에 대한 선제적 안전성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해남군은 자체 분석 장비를 통해 463종 이상의 잔류농약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검사 결과는 출하 일정에 맞춰 신속히 제공된다.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한 농약 사용지도 및 안전교육을 병행해 재배 단계부터의 품질관리 체계도 강화하고 있다.

해남군은 지난 2018년 농산물안전성 분석센터를 설립, 463성분의 잔류농약 성분에 대해 연간 1500여건의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분석을 희망하는 농가는 농산물 0.5~1kg를 채취해 농산물안전성분석센터에 검사를 의뢰하면 된다. 검사 비용은 무료다.

해남군 관계자는 “농가가 사전에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함으로써 부적합 판정을 예방하고,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실현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며 “앞으로도 농가의 부담을 줄이고 신뢰받는 농산물 유통을 위해 적극적인 분석 서비스를 제공해 농어촌수도 해남 이미지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해남=전연수 기자

